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의 사례연구

김현주·나현신*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요약

디자이너들이 가져야하는 사회적, 환경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되는 가운데, 21세기의 디자이너들은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는 ‘지속가능’을 동시대 디자인의 키워드로 채택하고 있다. 더불어 ‘지속가능 패션’의 실현을 위한 현대 디자이너들의 노력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지속가능 디자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 패션디자인 제품의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목표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발생배경 및 범주를 고찰하고, 지속가능 패션의 발생배경 및 범주를 분류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패션사례를 수집하여 시장성을 겸비한 고부가가치 패션 제품으로 거듭난 지속가능한 패션 디자인의 성공적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 환경적 친화성을 강조한 지속가능 패션 가운데, 재사용패션은 재사용할 의상들을 분해 또는 재조합하여 새로운 패션 제품으로 재탄생시킨 패션이다. 빈티지란 희소적, 미적 가치를 가진 중고 제품을 현대로 가져와 그대로 착용하는 패션이며, 오가닉 패션이란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한 패션, 베건 패션이란 합성피혁과 인조모피를 사용한 패션을 의미한다. 2) 경제적 친화성을 강조한 지속가능 패션 가운데, 가변적 패션이란 형태변화로 다양한 연출효과와 복합적인 기능성을 부여하는 패션을 의미하며, 소재의 감량을 고려한 패션은 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자원을 최소화한 패션이다. 3) 사회적 공정성을 강조한 지속가능 패션은 윤리적 슬로건을 담은 윤리적 슬로건 패션을 포함한다. 향후 연구로는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의 분류된 범주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 및 국내외 제품의 상호 비교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주제어 : 베건 패션, 감량 패션, 가변적 패션, 윤리적 슬로건 패션

I. 서론

한 시대의 디자인은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의 상황과 구성원들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며, 제품의 소재 선택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디자이너의 철학은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빅토르 파

넉(Victor Papanek, 2005)¹⁾은 제품 및 도구, 사회 기반 시설에 있어 디자이너들이 가져야하는 사회적, 환경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1세기의 디자이너들은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는 ‘지속가능(sustainability)’을 동시대 디자인의 키워드로 채택하고 있다. ‘지속가능 디자인’이란 디자인의 영역에서 지구가 처한 환경 문제를

본 논문은 2015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교신저자: 나현신, hsna@swu.ac.kr

접수일: 2015년 8월 3일, 수정논문접수일: 2015년 8월 24일, 게재확정일: 2015년 9월 2일

인식하고 이를 디자인에 적용시킨 것으로, 심각한 생태 오염에 대한 현대인들의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드리스 반 노튼(Dries Van Noten)은 대중들이 자신에게 에콜로지 패션을 추구 하냐고 질문할 때, “내가 만약 진정으로 에콜로지적 패션을 추구한다면, 나는 패션 제품을 만드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대답했다.²⁾ 그러나 지속가능 패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오늘날의 디자이너들은 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패션의 특성과 상반되는 개념의 ‘지속가능’을 패션과 접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SPA 브랜드의 등장과 더불어 패스트(fast) 패션으로 소비문화를 주도하던 패션업계에서 야기된 디자이너들의 사회적 책임 인식에서도 비롯된 것이다. 지속가능의 개념은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소비를 거쳐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패션 제품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 예컨대, 지속가능 패션디자인의 환경적 측면은 패션제품의 생산과 사용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요소와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은 디자인 제품의 효율성과, 사회적 측면은 제품 및 생산 단계에서 강조되는 윤리적 공정성과 연관된다. 이처럼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 지속가능 디자인의 실현을 추구하는 패션은 패션성이 가미된 친환경적, 윤리적(ethical), 느린(slow), 착한(good) 패션으로 오늘날 소비자들을 리드하고 있다.

특히, H&M과 같이 패스트 패션의 주범인 글로벌 SPA 브랜드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디자이너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과 자각 속에 지속가능 패션에 앞장서고 있다.³⁾ 해외 디자이너들의 선두적인 노력에 힘입어 국내 패션 업계 역시 지속가능 패션에 대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소재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품이 대부분이며, 재사용과 재활용 등 패션성과 제품성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2000년 이래 지속가능 디자인에 대한 관심으로 지속가능 패션 산업의 현황(Bastholm, 2011⁴⁾) 및 실천 과제(신혜영, 2011⁵⁾), 패션 사례(김수현, 2007⁶⁾; 남후

남, 2010⁷⁾; 이연희 외, 2007⁸⁾) 등의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의 목표가 균형 잡힌 환경을 구축하는 디자인 방법이 지속가능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 패션디자인의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카테고리를 각기 달리 구분하였으며, 지속가능 패션을 환경적 친화성, 경제적 지속성, 사회적 공정성의 기준으로 유형화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예컨대, 김수현(2007⁹⁾)은, 2000년대의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건축디자인의 사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원리적 요소들을 환경성, 경제성, 윤리성, 사회성, 시간성으로 구분하였다. 남후남(2010¹⁰⁾)은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한 제품 원료의 구입과 사용, 판매의 측면으로 분류하여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의 유형을 친환경 소재활용 및 친환경 디자인, 친환경 캠페인 디자인, 공정무역에 의한 디자인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친환경디자인은 재활용디자인, 원단폐기물 최소화디자인, 슬로패션 디자인, 다기능디자인으로 재분류하였다. 이연희 외(2007¹¹⁾)는 Alastair Fuad-Luck의 연구를 바탕으로 비롯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특성인 타임리스(timeless) 스타일, 핸드 터치(hand-touch) 스타일, 리뉴어블(renewable) 디자인, 트랜스포머블(transformable) 디자인의 범주로 구분하고, 2000-2005년의 지속가능한 느린 패션디자인 사례를 분류하였다.

또한 2005년 런던 패션 위크(London Fashion Week)에서 5% 미만이었던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가 2014년에는 전체의 1/3 이상으로 확대¹²⁾되고 있으며, 근래에는 지속가능 패션의 문제를 야기 시킨 SPA 브랜드까지 지속가능 패션의 실현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이내의 패션사례를 수집, 분석한 연구 역시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속가능 디자인의 출발점이자 근본적인 범주인 환경적 친화성, 경제적 지속성, 사회적 공정성을 기준으로 지속가능한 패션 디자인의 카테고리를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최근

패션 시장 가운데 시장성을 겸비한 고부가가치 패션 제품으로 거듭난 지속가능한 패션 디자인의 성공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동시대의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며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패션에 나타난 지속가능 디자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 패션디자인 제품의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함으로, 패션성과 제품성을 겸비한 지속가능 패션디자인 개발에 이바지하여 제품 개발의 단계에서 지속가능 패션의 실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 및 관련문헌, 인터넷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속가능 디자인의 발생배경 및 범주 그리고 지속가능 패션의 발생배경 및 범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적 친화성을 강조한 지속가능 패션, 경제적 친화성을 강조한 지속가능 패션, 사회적 공정성을 강조한 지속가능 패션으로 그 범주를 분류하였다.

이상에서 분류된 지속가능 패션의 범주를 바탕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지속가능 디자인의 실증적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때, 자료 수집의 범위는 지속가능 패션의 대두 요인으로서 패스트 패션의 시장 잠식이 시작되었던 2000년 이후부터 현재로 하였으며 관련 문헌 및 웹사이트 통해 지속가능 패션디자인의 사례 분석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패션에 있어서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제품 개발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일반적 고찰

1. 지속가능 디자인의 발생배경 및 정의

‘지속가능’이라는 용어는 1972년 ‘로마클럽’의 제 1차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처음 사용되었다.¹³⁾ 1987년 브룬틀랜드(Brundtland) 위원회에서 발표된 「우리의 공동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성’을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정의하였다.¹⁴⁾

‘지속가능’이라는 의미는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는’이라는 사전적 의미보다 ‘인문 사회학 전반에 걸쳐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 안에서 자연적 생산물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이라는 후자의 의미로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¹⁵⁾

이상과 같은 역사를 바탕으로, 오늘날에는 디자인의 심미적 가치 전달에서 더욱 발전한 사회적 가치 영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지속가능은 환경 친화적 건축 디자인 분야, 제품 디자인 분야 등에서 21세기 디자인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 선행 연구 및 저서도 출판되었는데, 2002년 발표된 「요람에서 요람으로(Cradle to Cradle)」는 미국의 친환경 건축가 윌리엄 맥도우(William McDough)와 독일의 화학자 마이클 브라운 가르트(Michael Braungart)가 함께 발표한 것으로, 수명을 다한 제품이 또 다른 제품을 위한 재료로 활용되고 새롭게 디자인되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¹⁶⁾ 또한 「에코디자인 핸드북(Eco-design Handbook, Alastair, 2009¹⁷⁾」, 「지속가능 범주에서의 제품디자인(Product Design in the Sustainable Era, Reis, 2010¹⁸⁾」 등과 같은 저서에서는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마틴 차터(Martin Charter)와 우슬라 티시너(Ursula Tischner)는 「지속가능한 해결(sustainable solution)」에서 지속가능한 제품 디자인이란 3가지 주요한 측면인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정의했다.¹⁹⁾ 즉,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란 사회적 배려와 윤리의식을 포함하는 사회적 공정성(socially equitable), 에너지의 효율과 자원의 활용 등을 고려하는 경제적 지속성(economically viable), 인간과 자연의 공

존을 염두로 한 환경적 친화성(environmentally benign)을 목표로 미래와의 공존, 배려를 추구하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2. 지속가능 패션의 발생배경 및 범주

패스트 패션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21세기 패션산업은 소재의 염색 및 가공 등을 위한 화학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대기오염, 제품의 짧은 수명주기로 인한 폐 의류의 누적 및 자원 낭비 등으로 인해 생태계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패션산업에서도 지속가능 디자인이 추구하는 환경적 친화성, 경제적 지속성, 사회적 공정성의 맥락으로, 현대 소비자들의 가치 지향적 요구와 패션 업체들의 사회적 책임이 반영된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의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제품의 기획에서 생산, 유통, 제품의 사용 후에 이르기까지 전 사이클에 적용 가능하다. 환경적 친화성, 경제적 지속성, 사회적 공정성을 추구하는 지속가능 디자인의 범주²⁰⁾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규정된 지속가능 패션디자인의 범주를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Yip(2010)²¹⁾은 소재적 측면

에서의 리사이클링 여부, 오가닉/천연소재의 사용 등을 고려하였고, 오랜 기간 지속가능한지, 생산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생산되었는지 또는 윤리적으로 생산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였다. Shen et al.(2013)²²⁾은 리사이클된 소재가 사용된 패션, 빈티지 패션, 오가닉 소재가 사용된 패션, 동물보호를 고려한 패션, 수공예적 패션, 맞춤 생산된 패션, 지역 생산된 패션, 공정무역을 고려한 패션 등을 지속가능 패션디자인의 범주로 설명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환경적 친화성을 나타내는 패션을 리사이클된 재료가 사용된 리디자인 패션, 빈티지 패션, 오가닉 소재가 사용된 패션, 인조 가죽 및 모피가 사용된 베건 패션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경제적 지속성을 나타내는 패션은 스타일의 가변성이 있는 패션, 재단 시 소재 감량화를 고려한 패션으로, 사회적 공정성을 나타내는 패션은 윤리적 슬로건을 담고 있는 패션으로 구분하였다<그림 1>.

이상과 같은 구분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지속가능 패션디자인의 실증적인 사례를 수집, 분석하였다.



<그림 1> 지속가능 디자인 및 패션

Ⅲ. 현대패션에 나타난 지속가능 디자인 사례

1. 환경적 친화성을 강조한 지속가능 패션

1) 리디자인(redesign) 패션

리디자인은 제품의 재상품화로부터 부품 단계에서의 재이용, 원재료로 환원하여 재가공하는 소재 재활용, 그리고 산업 폐기물의 재자원화까지, 자원의 순환 이용 모든 분야에 걸친 개념²³⁾으로, 자원의 절약과 자연계의 자정 능력 범위에서 폐기물을 배출시켜 환경에의 영향 감소와 이를 위한 기술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3R-reuse, recycling, reduce²⁴⁾에서 재사용(reuse)과 재활용(recycling)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5년 이상 리바이스(Levi Strauss)에서 근무하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역임한 영국 디자이너 개리 하비(Gary Harvey)는, 디자인의 영감을 우리 사회에서 버려진 의상(leftovers)들에서 출발하여 이를 재사용하는 것에서 얻는 대표적 디자이너이다. 2007년에 버려진 것들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킨 9벌의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구성된 첫 컬렉션을 발표했으며, 이 작품들은 런던 패션 위크 가운데 에콜로지와 오가닉적인 요소가 가미된 윤리적 패션을 위한 이벤

트인 ‘에스테티카(Estethica)’에 전시되어 각광을 받았다.

<그림 2>의 데님(denim) 드레스는 리바이스 청바지 42벌을 재사용한 것으로, 코트셋 형태의 바디에 서로 다른 톤의 청바지를 여러 층으로 구성하여 짧은 데님 재킷과 함께 코디하였다. 맥(mac) 드레스 역시, 18벌의 트렌치코트를 재사용한 의상으로 짧은 버버리의 체크 맥 코트에 코디하였다.<그림 3>.²⁵⁾

나일론 소재의 베이스볼 재킷(baseball jacket)은 내구성이 강한 하이테크 재질로 여러 해 착용될 수 있는 스포츠 유니폼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시즌 종료와 함께 버려지게 된다. 레번은 폐기된 26벌의 나일론 소재 베이스볼 재킷으로 버섯모양 실루엣의 드레스(baseball Puffball)를 제작하였으며, 30장의 파이넬설 타임즈(Financial Times) 신문으로 제작한 뉴스페이퍼(newspaper) 드레스도 발표하였다.

2006년 로얄 컬리지 오브 아트(Royal College of Art)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크리스토퍼 래번(Christopher Raeburn)은, 2008년 군복이나 폐낙하산 등을 소재로 가능성을 극대화시킨 ‘리메이드 인 잉글랜드(remade in England)’ 컬렉션을 시작으로 본인의 브랜드를 런칭하였다. 2011년에는 빅토리노스(Victorinox)사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Remade in Switzerland’ 컬렉션을 발표하였다.



<그림 2> 데님 드레스
(출처: <https://alexandrathere.wordpress.com>)



<그림 3> 맥 드레스
(출처: <https://alexandrathere.wordpress.com>)



<그림 4> 캡틴 코트
(출처: www.remadeinswitzerland.com)



<그림 5> 코콘 불루종
(출처: www.remadeinswitzerland.com)

빅토리눅스사의 창립자가 1984년 설립한 스위스 공장에서 진행된 이 작업에서도 역시, 스위스 군복, 침낭 및 시트 등의 침구, 낙하산 등, 다양한 군용품을 활용한 한정 수량의 제품들이 한정 생산되었다.²⁶⁾ 8개의 아이টে으로 구성된 캡슐 컬렉션 제품들에는 고유번호가 적혀있으며, 각각은 100벌씩 한정 생산되었다. <그림 4>의 캡틴(captains) 코트는 60년이 지난 스위스군의 모직 코트를 재사용한 디자인으로, 면 직물의 군용 침구 시트를 안감으로 재사용하면서 포켓 등 오리지널 군복에 있던 기능적 디테일을 최대한 보존하였다.²⁷⁾ 코큰 블루즈(cocoon blouson) 스위스 군용 침낭을 재사용 한 것으로, 침낭에서 사용된 끈 등을 보존하여 침낭처럼 말아서 보관할(packed and closed) 수 있게 설계하였다<그림 5>.

이처럼 개리 허버와 크리스토퍼 래번과 같이 지속 가능 패션을 추구하는 21세기 디자이너들은, 재사용 할 의상들을 분해하여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영감과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을 실현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2) 빈티지(vintage) 패션

빈티지란 양질의 포도로 만든 고급 와인에서 유래 된 것으로, 일정 기간을 경과해도 광채를 잃지 않는 어떤 특성의 두드러진 유행 또는 유행품을 가리킨다.



<그림 6> 런던 '리버티' 매장의 빈티지 코너
(출처: www.liberty.co.uk)

이는 '오래 되어도 가치가 있는(oldies-but-goodies)', 혹은 '오래 되어도 새로운(new-old-fashion)'으로도 해석된다.²⁸⁾ 패션에서의 빈티지란 1920년대 이래의 의상으로 현재부터 20년이 지난 의상²⁹⁾ 또는 과거에 이미 사용 처분된 중고 제품을 현대로 가져와 그대로 착용하는 풍조로서 1980년대 이후 부각되었다.

미적 가치와 희소 가치가 남다른 빈티지 제품은 고가의 패션 제품으로 여겨지며, 빈티지에 대한 현대 소비자들의 관심과 안목은 빈티지 시장을 활성화시켰다. 뉴욕 로어(lower) 맨하튼의 수많은 빈티지 스토어는 물론, 런던의 가장 특색 있는 백화점 리버티(Liberty)에 있는 디자이너 빈티지 코너<그림 6>, 마르세스 시몬스(Marcelle Symons)의 One Vintage와 같은 온라인 빈티지 사이트<그림 7> 등은 빈티지에 대한 현대 소비자들의 관심을 잘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빈티지 패션 역시, 생산, 소비, 폐기의 패션 사이클에서 매몰될 수 있는 패션을 되살리는 것을 통해 지속가능 패션을 실현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남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현대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3) 오가닉 패션

오가닉 소재란 살충제나 유독물질과 같은 화학적 사용, 유독한 화학물질의 배출과 같이 환경에 대한 손상이 최소화된 소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처럼 사



<그림 7> 온라인 빈티지 사이트 '원 빈티지'
(출처: www.onevintagedesigns.com)

용 후에 생분해가 가능한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한 패션을 오가닉 패션이라고 한다.

오가닉 소재 사용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브랜드, 아일랜드 피셔(Eileen Fisher)는 ‘비전2020’ 캠페인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100퍼센트 지속가능한 패션을 완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³⁰⁾ 이와 같은 계획에 있어 주요한 핵심은 소재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아일랜드 피셔는 레이온을 위한 텐셀 대신에 오가닉 린넨과 커튼 소재로 구성된 에코 컬렉션<그림 8>을 발표하였다.³¹⁾

지속가능한 패션의 필요성을 대두시킨 패스트 패션의 대표주자 H&M은 지속가능한 패션을 매력적이고 접하기 쉬우며 저렴하게 만들고자하는 것을 자사의 미션으로 정하고 있다. 브랜드의 목표는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H&M 매장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함이다.³²⁾

유기농 먼 거래에 관한 소재거래소(Textile Exchange)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H&M은 전 세계 유기농 먼 바이어의 연간 거래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에는 친환경적인 메시지가 담긴 플로랄 패턴의 유기농 먼, 유기농 린넨, PET 병을 재활용한 폴리에스테르 등을 소재로 한 ‘가든 컬렉션(The Garden Collection)’<그림 9>를, 2015년에는 오가닉 먼, 오가

닉 실크, 리사이클 세틴과 비즈로 구성된 컬렉션을 전개했다.³³⁾

이상과 같이,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 속에 패션업체들은 오가닉 소재로 만들어진 패션 제품의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오가닉 패션제품의 매출 또한 급증하고 있다.

4) 베건(vegan) 패션

‘베건’이란 원래 엄격한 채식주의라는 뜻으로, 동물을 보호의 이슈와 더불어 합성피혁이 새로운 ‘베건’ 레더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되었다.³⁴⁾ LA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1980년대와 90년대 락스타와 클럽을 누비던 젊은이들의 의상에서 각광받던 그 인조 가죽 소재가 최근 베건 레더(vegan leather)<그림 10>라는 이름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제조 기술과 디자인의 발전으로 디자인과 기능이 우수한 베건 레더는 인조가죽이 천연 가죽 제품의 형성한 모조품이라는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켰다. 인조 모피 역시 소재 기술의 발달로, 진짜 모피로 만들어진 것인 고 품질의 아크릴 폴리머로 만들어진 인조 모피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처럼 우수한 인조 모피 제품은 트렌디하며 촉감이 부드럽고 매끄럽고 보온성이 더 우수하다는 장점을 보이며, 종종 진짜 모피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어진다. 인조 모피와 베건 레더는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다. 이는



<그림 8> 아일랜드 피셔의 에코 컬렉션
(출처: www.eileenfisher.com)



<그림 9> H&M의 가든 컬렉션
(출처: www.ecouterre.com)

오늘날 젊은이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들이 내구성보다는 스타일을 중시하는 패스트 패션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스텔라 맥카트니(Stella McCartney) 모피와 퍼의 사용에 반대하는 최초의 럭셔리 패션 브랜드로서, Hussein Chalayan, Kate Spade, Julie de Libran for Sonia by Sonia Rykiel and Julien David과 더불어 인조 모피(faux fur)나 인조 가죽 제품으로 명성이 높다.³⁵⁾ 특히, 패션계에서 에코패션의 선두주자로 인식되는 스텔라 맥카트니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동물의 모피와 퍼의 사용을 모든 컬렉션에서 배제하였다. 그녀는 제품 생산에 있어서 가죽이나 모피는 물론이고 동물에서 비롯된 제품을 포함하는 접착제 사용도 배제한다.

초기에 발표한 그녀의 ‘베지테리언 슈즈(vegetarian shoes: 동물 가죽을 사용하지 않은 구두)’는 조소의 대상이 되었지만, 2009년에는 스텔라가 <타임(Time)>지가 선정한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의 하나가 될 정도로 그녀의 사업 모델은 많은 이들에게 에콜로지와 윤리적 트렌드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³⁶⁾ 2015년에도 역시, 그녀의 컬렉션은 “모피가 사용되지 않은 모피(Fur Free Fur)”라는 테마로 개최되었다<그림11>.

이상과 같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속하고자하는 노력으로,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은 앞선 기술과 디자인으로 개발된 베건 레더를 사용한 고가의 제품을 런웨이에 등장시키고 있다.

2. 경제적 지속성을 강조한 지속가능 패션

1) 가변적 패션

가변성이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변적 패션이란 끈과 같은 디테일의 조작이나 의복의 부분적 탈부착에 의한 형태변화로 다양한 연출효과와 복합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패션을 의미한다. 가격에 민감한 현대 소비자 들은 한 벌의 의상을 구비하여 다양한 룩을 연출할 수 있는 합리적 의복 소비를 추구한다. 이처럼 한 벌의 의상이 창의적 디자인 발상에 의한 다양한 코디와 착장으로 여러 벌의 효과를 연출하여 실용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면 의복의 소비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패션의 실현을 가능케 한다.

컨버터블 의상으로 대표적인 도나 카란(Donna Karan)의 인피니티(infinity) 드레스<그림 12>는 무게감 있는 검은색 저지(matte jersey)로, 끈을 어떻게 둘러 연출하느냐에 따라 쉬스(sheath) 드레스, 원 숄더(one-shoulder) 드레스, 캡 소매(cap-sleeve), 홀터(halter)



<그림 10> 베건 레더 재킷
(출처: www.bluefly.com)



<그림 11> 페이크 퍼 코트
(출처: http://observer.com)



<그림 12> 도나카란의 인피니티 드레스
(출처: <http://coquette.blogs.com>)

원피스 등 다양한 룩으로 변화 가능하다. 또한 그녀는 12가지의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 가능한 스웨터 라인인 ‘Cozies’도 발표했다.

YAY의 컨버터블 기모노 드레스<그림 13>는 검은색 테두리에 스냅(snap)이 달린 스타일로, 스냅의 개폐 및 연결방법에 따라 튜닉, 스커트, 베스트, 카디건, 스카프 등의 다양한 아이템으로 변형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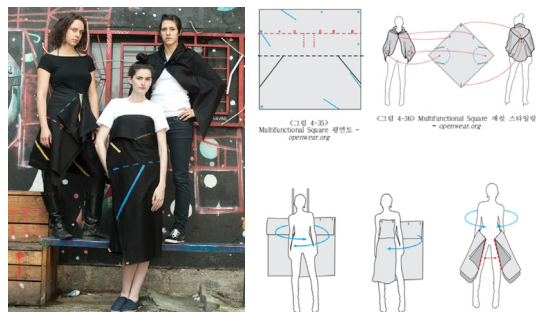
<그림 13> YAY의 Lilia 컨버터블 기모노 드레스
(출처: <http://yaydesigns.bigcartel.com>)

오픈웨어(Openwear)의 Multisquare<그림 14>는 한 장의 사각형 천을 가지고, 표시되어 있는 대로 천을 접어 연결하면 재킷, 원피스, 스커트의 다양한 방식으로 착용 가능한 의상이다. 원피스와 스커트는 적당한 길이의 천을 접어 신체에 둘러 입을 방식이며, 재킷은 양 모서리 끝을 연결하고 앞을 여며 입을 방식으로 케이프와 유사하지만 좀 더 발전된 방식으로 착용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 가능한 아이템은 한 벌로 여러 벌의 연출 효과를 가능케 하여 의복의 소비량을 절감시키며, 한 가지 아이템에 대한 사용 기간 또한 장기화시켜 자원절약과 폐기물의 감소효과를 가능케 함으로 지속가능한 패션을 가능케 한다.

2) 감량(reduce) 패션

감량화 및 감소화는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의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절약하고, 더 나아가 기



<그림 14> Openwear의 Multisquare
(출처: <http://openwear.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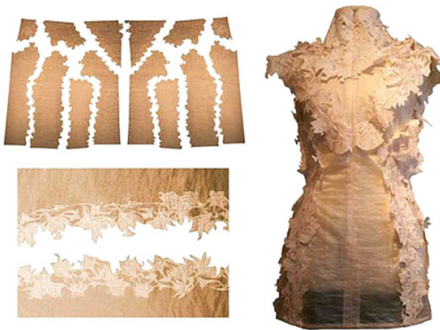
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재검토하고 적은 자원과 에너지 사용으로 고부가가치를 만들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이다.³⁷⁾ 오늘날 현대 패션은 패스트 패션의 영향으로 인한 의복 소비의 급증으로, 소비 체인의 끝에서 방출되는 의류쓰레기의 누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소재의 감량을 고려한 패션은 패턴 메이킹과 마커 메이킹 기술을 통해, 생산 과정에서 소모되는 자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패션의 실현을 가능케 하고자 함이다.

전통적인 패턴 재단 방법에서는 15-20% 정도의 직물이 쓰레기로 버려지며 불규칙적인 형태의 폐소재 조각들은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지거나 또는 매트리스, 충전재, 절연재 등으로 재활용된다. 마크 리우(Mark Liu)는 이러한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단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춰서 활용하게끔 외곽선을

지그재그로 재단하는 방법인 제로 웨이스트 커팅(zero waste cutting)을 시도³⁸⁾하여<그림 15> 버려지는 소재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티모 리사넨(Timo Rissanen)은 마들렌 비오넷(Madeleine Vionnet)에 관하여 조사하며,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 제로 웨이스트 패션(zero waste fashion)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며 재단에서부터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패션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³⁹⁾ 패턴 조각들의 외곽선을 지그재그 모양으로 재단한 마크 리우와는 달리 대부분의 패턴 조각들이 직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일정 원단 안에 의복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포함시켜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패션을 완성하였다<그림 16>.

데이비드 텔퍼(David Telfer)는 티모 리사넨, 홀리 맥퀼리안(Holly McQuillan), 잔드라 로즈(Zandra Rho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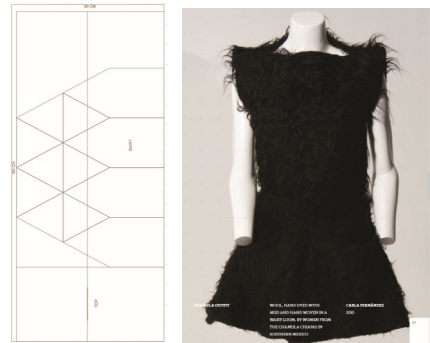
<그림 15> 마크리우 폐소재 감량화 재단
(출처 : www.ecouterre.com)



<그림 16> 티모 리사넨의 제로 웨이스트 패션
(출처 : <http://www.yieldexhibition.com>)



<그림 17> 데이비드 텔퍼의 더플(duffle) 코트
(출처 : www.davidtelfer.co.uk/page3.htm)



<그림 18> 카롤라 페르난데즈의 드레스
(출처 : <http://www.yieldexhibition.com>)

줄리안 로버츠(Julian Roberts)와 함께 2010년 뉴질랜드, 2011년 뉴욕에서 ‘낭비 없는 패션 만들기(making fashion without waste)’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그는 최소 솔기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폴드(fold) 커팅 방법으로 제로 웨이스트를 실현하였다. “장방형의 천에서 시작해서 소재를 작은 조각으로 재단하지 않고 테일러드된 스타일리쉬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언급한 그는 의상을 구성함에 있어 솔기를 최소화(less seam)하는 커팅 방법으로 제조시간의 단축과 에너지와 노동력 절감을 가져오며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림 17>.40)

공정무역과 환경 정책을 중요시는 브랜드 Taller Flora의 설립자이자 디자이너인 카를라 페르난데즈(Carla Fernandez)는 전통 멕시코 민속복에서 착안한 유니크한 스타일로 유명하다.41) 전통 멕시코 민속복의 패턴이 기하학 형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에서 착안하여, 민속복의 커다란 기하학 형태를 의상 디자인에 적용하였다<그림 18>. 동시에 지속가능한 패션의 실천을 위하여 기하학 형태의 패턴을 재료의 낭비 없이 배치하여 친환경적이라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량 패션은 기획 단계 및 제작 단계에서부터 의상 제작 시 소모되는 직

물 폐기물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패턴 설계 및 재단 방식을 시행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현하고자 21세기의 의식 있는 디자이너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3. 사회적 공정성을 강조한 지속가능 패션 : 윤리적(ethical) 슬로건 패션

윤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道)를 의미하는 것으로, 윤리적 슬로건 패션은 환경오염의 심각성 및 아웃소싱 지역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문제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자각을 목적으로 패션기업들의 환경보호와 공정무역에 관한 슬로건 캠페인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공정성을 강조한 지속가능 패션의 실현을 가능케 한다.

1983년부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슬로건 티셔츠를 발표하고, 판매 금액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으로 유명한 캐서린 햄넷(Katharine Hamnett)은 지속가능 패션 디자이너이자 캠페이너이다. ‘슬로건 티셔츠의 여왕’이라고 불리 우기도 하는 햄넷은 1989년부터 소재 산업에 있어서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활발한 리서치를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먼 재배 시에 사용되는 살충제가 연간 10,000여명의 사망자와 토지의 사막



<그림 19> 캐서린 E. 햄넷 라인
(출처: www.kitmeout.com/2006/12/katharine-hamnett-t-shirts-john-smedley-knitwear/)



<그림 20> 캐서린 햄넷 티셔츠
(출처: <http://inhabitat.com>)



<그림 21> 캐서린 햄넷 티셔츠
(출처: <http://creative-idle.blogspot.com>)

화, 수질오염, 근로 환경의 문제점 등을 야기함을 깨닫고 먼 재배의 위험성에 대한 강연과 친환경적 면소재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녀는 오가닉 코튼의 이점을 홍보하기 위해 새로운 윤리적 생산을 강조하는 **new ethical Katharine E Hammett line**⁴³⁾<그림 19>을 발표했고, 2006년부터 중단했었던 슬로건 티셔츠 라인을 다시 시작했다.⁴⁴⁾

또한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면 생산에 있어서 어린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에 대항하고 윤리적 생산을 이룩하기 위해, 아동의 노동력 착취에서 비롯된 면소재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EU규제를 확립하기 위해 환경단체 EIJ와 협업을 진행했다. 환경단체의 지원자인 슈퍼모델 릴리 콜(Lily Cole)은 햄넷과 협업하여, “미래를 구하자(Save the Future)”라고 써여 있는 햄넷의 한정판 티셔츠 모델을 자원하였다<그림 20>.⁴⁵⁾

2011년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포퓰리스트(populist)의 주제를 컬렉션 제목으로 하여, 윤리적 패션을 추구하는 럭셔리 컬렉션인 ‘HERE COMES THE SUN’<그림 21>을 발표했다. 햄넷은 태양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며, “이제 우리는 안전하지 못한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한다.”라고 언급했다⁴⁶⁾. 즉, 윤리적 슬로건 패션이란, 의상에 공정무역 및 환경적 논쟁에 대한 윤리적 슬로건을 담아 의복 생산의 과정에서 야기되어왔던 인간의 권리 및 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여 지속가능 패션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현대패션에서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의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이 정리된다.

IV. 결론 및 요약

‘지속가능’이 현대 디자인의 패러다임을 지배하는 가운데, 지속가능 패션의 실현을 위한 현대 디자이너들의 노력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 패션디자인 제품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목표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발생배경 및 범주를 고찰하고, 지속가능 패션의 발생배경 및 범주를 분류하였으며, 2000년 이

<표 1>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의 분류

지속가능 디자인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구분	특성	디자이너
환경적 친화성	리디자인 패션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패 패션 제품을 분해하여 재조합한 패션	개리 하비 크리스토퍼 래빈
	빈티지 패션	사용 처분된 중고 제품을 현대로 가져와 그대로 착용한 패션	-
	오가닉 패션	생분해가 가능한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한 패션	아일린 피셔
	배건 패션	합성피혁과 인조모피를 사용한 패션	스텔라 맥카트니
경제적 지속성	가변적 패션	형태변화로, 다양한 연출효과와 복합적인 기능성을 부여하는 패션	도나 캐런 YAY Openwear
	감량 패션	패턴메이킹과 마킹 기술을 통해, 자원을 최소화한 패션	마크 리우, 티모 리사넬 데이비드 텔퍼 카를라 페르난데즈
사회적 공정성	윤리적 슬로건 패션	공정무역 및 환경적 논쟁에 대한 윤리적 슬로건을 담은 패션	캐서린 햄넷

래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지속가능 디자인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환경적 친화성, 경제적 지속성, 사회적 공정성의 측면으로 지속가능 패션의 카테고리를 유형화하였다. 이에, 환경적 친화성을 강조한 지속가능 패션은 리디자인 패션, 빈티지 패션, 오가닉 패션, 베건 패션으로 분류하였으며, 경제적 지속성을 강조한 지속가능 패션은 가변적 패션, 감량 패션으로, 사회적 공정성을 강조한 지속가능 패션은 윤리적 슬로건 패션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사례를 수집, 분석하였다.

환경적 친화성을 강조한 지속가능 패션 가운데, 리디자인 패션은 쓰레기로 묻힐 수 있는 재료들을 분해하여 재조합한 패션으로, 2010년 8월 미국판 보그(Vogue)지에서 지속가능 패션의 “4R(Reduce, Reuse, Recycle and Reburn)로 표현되었던 레번과 개리 하비의 작품의 예에서와 같이 디자이너의 영감과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 패션제품이 재탄생된다. 또한 빈티지 패션은 제품의 사이클 상에서 이미 사용 처분된 중고 제품을 현대로 가져와 착용하는 것으로, 빈티지 제품의 희소성과 미적 가치는 안목 있는 현대 소비자들에 의해 부각되어 각광 받고 있다. 환경에 대한 손상을 최소로 하는 오가닉 패션은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한 패션으로, 지속가능 패션의 필요성을 대두시킨 H&M과 같은 패스트 패션 업체 역시, 2013년 이후 오가닉 소재를 사용한 라인을 꾸준히 증가시키며 지속가능 패션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동물 보호의 이슈와 더불어 합성피혁과 인조모피를 사용한 패션인 베건 패션은 에코패션의 선두주자였던 스텔라 맥카르티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의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전개되었다.

경제적 지속성을 강조한 지속가능 패션 가운데, 가변적 패션이란 창의적 디자인 발상에 의한 디테일 조작이나 의복 부분적 탈부착에 의한 형태변화로 다양한 연출효과와 복합적인 기능성을 부여하는 패션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의복의 소비량을 절감시키며 이는 자원 절약과 폐기물의 감소와

도 연관되어 경제적인 지속 효과를 도래할 수 있다. 또한 감량 패션은 패턴 구성에 대한 기존관념을 넘어선 패턴 메이킹 기술을 통해 재단 과정 및 봉제에서부터 폐기과정까지, 생산의 전 과정에서 소모되는 자원 및 에너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패션이다. 그 실현을 위하여 패턴의 배열뿐 아니라 패턴 조각의 형태까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구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의상 디자인의 형태 및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퍼즐이나 기하학 형태로 이루어진 패턴 조각들이 합쳐진 의상이나 접는 방식의 패턴 구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공정성을 강조한 지속가능 패션은 공정무역 및 환경적 논쟁에 대한 윤리적 슬로건을 담은 패션으로, 의복의 생산 과정에서 이슈화되었던 인권과 환경에 대한 문제 해결을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과거부터 친환경 패션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주로 실행되어 왔던 방식은 주로 소재의 재활용, 오가닉 소재의 사용과 같은 측면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지속가능함이 패션 업계에 본격적으로 대두되며, 이전의 단순한 친환경 패션의 의미를 넘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친환경의 실현이 이슈로 떠오르며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상품의 생산 단계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제품 사용 중 발생하는 자원 및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움직임 즉 경제적 지속성에 관한 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그 예시로 가변적 패션과 감량 패션을 제시하였다. 즉, 앞으로의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제품은 과거부터 실행해오던 환경적 친화성과 함께 경제적 지속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디자이너는 제품의 디자인뿐 아니라 기획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구성 그리고 사용 시 에너지 소비까지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품이 생소한 소비자를 위하여 윤리적 슬로건 패션과 같이 지속적인 캠페인 또한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앞으로의 지속가능 패

선 디자인 제품은 환경, 경제,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제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어패럴 제품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 패션 제품의 수집,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 패션 제품의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현대인들의 지속되는 관심으로 지속가능 패션이 국내외 패션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가운데, 액세서리와 같이 다양한 아이템의 사례 수집 및 분석 또한 다양한 패션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Papanek, V. (2005). 인간을 위한 디자인, 조재경 외 옮김 (2009). 서울: 미진사, pp.1-465.
- 2) Espinosa, R. (2008. 6. 6). Dries Van Noten's Independent Vision Strikes a Chord, Fashion Wire Daily, retrieved 2015. 3. 7. http://www.fashionwire.com/first_word/news/article.weml?id=1998
- 3) Bin, S. (2014). Sustainable Fashion Supply Chain: Lessons from H&M. Sustainability, 6(9), pp.6236-6249. <http://www.mdpi.com/2071-1050/6/9/6236/pdf?view=inline>
- 4) Bastholm, S. C. (2011). 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장: 한국과 덴마크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0.
- 5) 신혜영 (2011). 패션 산업의 메가트렌드로 나타난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178.
- 6) 김수현 (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지속가능한 디자인 연구: 영국사제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123.
- 7) 남후남 (2010). 서스테이너블 패션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0(2), pp.53-68.
- 8) 이연희, 이현아, 박재욱 (2007). 현대 패션에 표현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한국의류학회지, 31(1), pp.21-32.
- 9) 김수현. 앞의 책, p.227.
- 10) 남후남. 앞의 책, pp.53-68.
- 11) 이연희, 이현아, 박재욱. 앞의 책, pp.21-32.
- 12) Teen Age Fashionwear, Key Note Online, retrieved 2015. 5. 8. <http://www.keynote.co.uk/media-centre/in-the-news/display/teenage-fashionwear/?articleId=93>
- 13) 전종찬 (2004). 제품디자인에 나타난 에코디자인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5(1), pp.261-271.
- 14) 김수현 (2006).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의 개념과 원리, 기초조형학연구, 7(3), p.227.
- 15) 채혜숙 (2009).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특성과 현대 패션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4), p.532.
- 16) Braungart, M. & McDonough, W. (2002). 요람에서 요람으로, 김은령 옮김 (2003). 서울: 에코리브르, pp.1-259.
- 17) Alastair, L. (2002). Eco-Design Handbook. London: Thames & Hudson, pp.1-352.
- 18) Reis, D. (2010). Product Design In The Sustainable Era. Koln: Taschen; Mul edition, pp.1-439.
- 19) Tischner, U. & Charter, M. (2001). Sustainable Solutions: developing products and services for the future, London: Greenleaf, p.121.
- 20) White, P., Belletire, S. & Pierre, L. St. (2004). Okala ecological design, In Pick, Day & Townsend (1993), Cognition: Eco design Section of the Industrial Designers Society of America (IDSA) with Eastman Chemical Co., Whirlpool Corporation and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 21) Yip, D. (2010. 4. 9). What does sustainable fashion mean to you? retrieved 2015. 1. 2. <http://www.granvilleonline.ca/gr/blogs/citizen-style/2010/04/09/what-does-sustainable-fashion-mean-you>
- 22) Shen, D., Richards, J. & Liu, F. (2013). Consumers' awareness of sustainable fashion. Marketing Management Journal, Fall, pp.134-147. <http://www.mmaglobal.org/publications/MMJ/MMJ-Issues/2013-Fall/MMJ-2013-Fall-Vol23-Issue2-Shen-Richards-Liu-pp134-147.pdf>
- 23) 배지영 (2007). 친환경적 패션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
- 24) 네이버 지식백과(검색어: 3R), 자료검색일 2015. 5. 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4003&cid=50330&categoryId=50330>
- 25) Thérèse, A. (2011. 5. 9.). Gary Harvey: This is not fast fashion, retrieved 2015. 1. 2. <https://alexandratherese.wordpress.com/category/fashion/designers/>
- 26) Remade in Switzerland. retrieved 2015. 5. 6. <http://www.remadeinswitzerland.com/aw11-capsule-collection/parachute-hoodie/gallery/for-women.html>
- 27) Remade in Switzerland. retrieved 2015. 5. 6. <http://www.remadeinswitzerland.com/aw11-capsule-collection/ocoon-blouson/gallery/for-women.html>
- 28) 패션전문자료사전 편찬위원회 (2005). Fashion 전문자료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p.551.
- 29) Wikipedia(검색어: vintage clothing), 자료검색일 2015. 4. 7. http://en.wikipedia.org/wiki/Vintage_clothing
- 30) Stewart, L. (2015. 5. 13). Eileen Fisher Wants to Achieve "100 Percent Sustainability" by 2020, retrieved 2015. 5. 6. <http://www.ecouterre.com/eileen-fisher-wants-to-achieve-100-percent-sustainability-by-2020/>
- 31) Eileen F. (2015. 4. 28), retrieved 2015. 5. 6. <http://www.eileenfisher.com/EileenFisher/collection/ampersand/>

- ampersand_shop/eco_collection.jsp?showAll=1
- 32) Reyes-Aguila, J. (2015. 4. 27). Green is in: H&M launches stylish clothes made from future-ready, sustainable fabrics. retrieved 2015. 5. 6. <http://www.interaksyon.com/lifestyle/green-is-in-hm-launches-stylish-clothes-made-from-future-ready-sustainable-fabrics>
 - 33) Wilson, J. (2015. 4. 24). Sustainable style at H&M. retrieved 2015. 3. 6. <http://ottawacitizen.com/life/style/sustainable-style-at-hm>
 - 34) Li, S. (2015. 2. 4.). Vegan fashion grows more fashionable as textile technology improves. retrieved 2015. 3. 6. <http://www.latimes.com/business/la-fi-vegan-fashion-20150205-story.html#page=1>
 - 35) Putnam, L. (2015. 5. 21.). More fashion designers opting for faux fur, vegan leather, New York Post, retrieved 2015. 3. 6. <http://nypost.com/2015/05/21/more-fashion-designers-opting-for-faux-fur-vegan-leather/>
 - 36) 최경희 (2012. 10. 26). 스탠라 맥카트니, 자료검색일: 2015. 1. 7.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5&contents_id=14954
 - 37) 배지영. 앞의 책, p.8.
 - 38) Mark Liu Homepage, retrieved 2015. 2. 16. <http://www.markliu.co.uk/about.html>
 - 39) McQuillan, H. & Rissanen, T. (2011). Yield : Making Fashion Without Making Waste, p.18. <http://www.yieldexhibition.com>
 - 40) David Telfer Homepage. retrieved 2015. 2. 16. <http://www.davidtelfer.co.uk/page3.htm>
 - 41) McQuillan, H. & Rissanen, T. op.cit., p.42.
 - 42) 네이버 국어사전(검색어: 윤리) 자료검색일: 2015. 3. 3.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9893300>
 - 43) ‘E’는 윤리적(Ethical)과 환경(Environmental)의 첫글자
 - 44) Danyelle, J. (2007. 12. 8). Designer profile: Katharine Hamnett. retrieved 2015. 2. 16. <http://inhabitat.com/designer-profile-katharine-hamnett/>
 - 45) Danyelle, J. (2007. 2. 25.). Katharine Hamnett’s Ethical Cotton Campaign. retrieved 2015. 2. 16. <http://inhabitat.com/katharine-hamnetts-ethical-cotton-campaign/>
 - 46) Here Comes Katharine Hamnett (2011. 1. 10) retrieved 2015. 2. 16. http://creative-idle.blogspot.com/2011_01_01_archive.html

A Case Study on the Sustainable Fashion Design

Kim, Hyun Ju · Na, Hyun Shin[†]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Women's University[†]

Abstract

While the importance of designers' responsibility on the society and environment is getting greater, 21st century's designers adapt the 'sustainable' as a major keyword in design. Also, contemporary fashion designers are trying to accomplish the sustainable fashion in the various wa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guideline for developing sustainable fashion design product through case analysis of sustainable design which is shown in modern fashion, and the theoretical review and empirical case study were conducted. Through theoretical review, the background and categories of sustainable design are studied and those of sustainable fashion are classified. Also fashion cases since 2000 are collected and analyzed as examples of success cases which become highly marketable fashion products of sustainability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As the result, sustainable fashion design is categorized into seven different types of fashion.; 1) In the environmentally benign aspect, there are 'reuse fashion' upcycling the fashion trash, 'vintage fashion' originating from a previous era, 'organic fashion' using organic material, and 'vegan fashion' using synthetic leather and fake fur. 2) In the economically viable aspect, there are 'transformable fashion' showing different look by transforming and reducing materials needed for a manufacturing process. 3) In the socially equitable aspect, there is 'ethical slogan fashion' showing ethical slogan about fair trade and environment. Sustainable fashion in each category could be studied separately and the domestic and foreign fashion product could be compared in the future study.

Keyword : vegan fashion, reduce fashion, transformable fashion, ethical slogan fashion